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연구

Multicultural Couples' Needs of Marriage Education Programs

손서희(Seohee Son)¹, 전미경(Mikyung Jun)², 강복정(Bojeong Kang)³, 이은주(Eunjoo Lee)^{2*}

¹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³Family Service Division,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eeds of marriage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couples based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total of 816 multicultural families (247 Korean husbands and 569 foreign wives) were recruited through 99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conducted. The program needs that we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reas included the need to develop education on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language of partner," "increased intimacy of the coupl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set goals for life." We also found that each participant's gender, foreign wife's country of origin, participant's education level, and marriage dur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needs of marriage education progra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amily lif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ouples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mily life cycle instead of providing a universal program for all multicultural couples.

▲주제어(Key words) : 결혼지속년수(duration of marriage),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부부교육 프로그램(marriage education programs), 프로그램 요구도(program needs)

I. 서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한 데에는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위시한 국제결혼의 장려와 같은 우리 사회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불어온 전지구화 현상은 1990년대부터 진행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및 2000년대부터 확산된 결혼이주의 본격화에 가속을 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내 외국인과 이주민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정한 전환

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동화나 적응의 관점이 아닌 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적 관점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로의 통합적 전환에 다문화가족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적 공간이면서 일상이 전개되는 곳이다. 또 구조적으로 성별관계, 세대관계이면서 남편-아내, 부모-자녀 등의 가족지위에 의한 역할관계이면서 동시에 권력관계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가족규범은 그 어떤 사회보다 강력한 규범으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 민주적인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은

* Corresponding Author : Eunjoo Le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30, Phildong-ro-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tel: +82-10-2001-8877, E-mail: ejrqo94@nate.com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2015년 기준 대략 82만 명 내외이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b). 다문화가족은 문화적 다양성과 이중 언어 구사 가능으로 높은 다문화 민감성, 글로벌 시민으로의 가능성 등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대처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수요자 욕구를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양해지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비스 대상 가족의 특성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정책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중심축으로, 부부관계의 질은 가족 전반의 건강성 및 행복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좋은 부모됨의 출발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부부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생활문화 차이, 원가족 및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K. Kang & C. Chung, 2009). 특히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부부는 구혼기간이 짧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들의 남녀 간 평균 초혼연령차는 7.5세로 전년보다 0.1세 증가하였고(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결혼이주를 통한 부부간 연령차는 다문화부부의 주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 부부 간 많은 연령차는 생애주기 및 세대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건강한 관계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이혼 건수는 2014년 기준 9,754건에 이르러 전체 이혼 중 8.4%를 차지하고 있어(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b) 다문화부부의 관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주요 시행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21개의 시군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 결혼이민

자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2015년 현재 217개가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및 가족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전달체계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다문화 부부는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고(H. Kim & C. Lim,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지원하는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 Park & M. Um, 2009).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는 대상가족의 프로그램 욕구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으로 기본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5년 사업 영역 개편에 따라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영역으로 재조정하여 사업 영역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가족영역의 사업 운영 목적은 가족 간의 관계 향상 및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이다. 현재 가족영역 사업 운영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매뉴얼이 개발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다. 주요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결혼과 가족의 이해, 아버지교육,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문화부부의 특성별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평등 영역 사업의 경우 부부교육을 공통필수로 제시하고 있으며, 배우자 이해 프로그램,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부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부부 대상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부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앞서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가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발전하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 발달적 욕구를 갖는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J. Park, 2009).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부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발달주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각 집단별 부부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거나 부부관계 향상을 돕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H. Cheon, H. Choi, & I. Kang, 2006) 또한 결혼이주를 통한 다문화부부의 가족 형성과정이나 사회인구학적·가족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가족의 발달과업은 비다문화부부의 발달과업과 상이할 수 있다. 다문화부부의 가족생활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발달과업에 장기적 관점을 갖도록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이민자 개인 및 초기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J. Park, M. Jun, & S. Son, 2016).

다문화부부 지원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또한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G. Chung & J. Lim, 2011; E. Lee & M. Jun, 2014; H. Sung, 2011; S. Yang & M. Lee, 2011)으로 이루어져 남성의 가족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이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관련 욕구에 대한 조사(H. Goo, 2013; M. Kim, 2012)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 다문화부부의 특성별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Y. Lee, 2010). 다문화부부 대상 프로그램 욕구 파악 부족은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현실적인 개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족생활 경험과 인식은 부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한 조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경험하는 가족생활이나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J. Kim, 2012; J. Park & K. Lee, 2014)가 다르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부부(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여러 민관기관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국 규모로 설치된 이 센터가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효

과적인 지원을 위해 어떤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부부(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다문화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조사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학력 수준, 결혼지속년수를 포함하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의 필요성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도움으로써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게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 갈등 관리, 친밀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룬다(W. Halford & D. Snyder, 2012). 또 부부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에 참여하는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관계에 대한 지식수준 및 기술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인 내용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 대상의 특별한 요구(unique needs)를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J. Larson & W. Halford, 2011).

가족생활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교육을 통한 참여자들의 가족생활 변화에 있으므로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고 있으며(O. Kim, K. Kim, & J. Lee, 2008; E. Lee, 2007; E. Yu & D. Kim, 2005), 특히 서구에서 이루어진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부부관계의 질과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인종과 같은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른 효과성 연구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A. Hawkins, V. Blanchard, S. Baldwin, & E. Fawcett, 2008).

한편 우리의 경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욕구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비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수 진행되어 왔다(D. Hong & K. Park, 2004; S. Kim & S. Moon, 2014).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주요 시행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 217개소(2015년 기준)로 확대되어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만족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G. Chung & J. Lim, 2011; E. Lee & M. Jun, 2014; H. Sung, 2011; S. Yang & M. Lee, 2011). 연구 결과로는 부부간의 친밀감, 고부관계의 친밀감, 원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 지역사회적 지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 Chung, H. Park, & B. Oh, 2010; K. Kang & C. Chung, 2009).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에 대한 정보 및 다문화부부 대상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부부 연구는 한국 남성 배우자의 욕구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결혼생활 관련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한국 남성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H. Kim & C. Lim, 201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한국 남성 배우자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한국 남성 배우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부부의 관계 특성을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부부싸움의 주요 이유로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싸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비 등 경제 문제, 자녀교육 및 행동문제, 문화 및 종교 가치관 등의

차이가 주요 갈등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E. Lee & M. Jun, 2014)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만족, 배우자의 모국문화 이해도, 가정 내 역할수행, 원만한 성생활 및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수준과 적응 능력이 높고(W. Choi, 2007)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M. Kong & S. Oh, 2010)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부부갈등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여성이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보다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 Park & K. Lee, 201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의 남성 대상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K. Kim, J. Sun, & S. Oh,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의 아내를 둔 경우가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둔 남성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경험하는 부부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는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발달의 특성상 다문화가족도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험하는 부부관계 및 이에 따른 다문화부부의 서비스 욕구도 변화한다(Y. Kim, A. Lee, & E. Lee, 2013; J. Park, 2009). 다문화부부는 결혼초기에는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욕구는 낮아지는 반면, 가족 간의 갈등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Y. Lee et al., 2013) 이와 관련한 서비스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문화가족의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다름(J. Kim, 2012)을 고려할 때 다문화부부의 결혼지속년수를 고려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부부의 가정경제, 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부 대상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 운영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학력, 결혼지속년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부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고찰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 Jang(2013)은 가족형성기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부부 간의 성 차이, 의사소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형성기 다문화부부 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J. Kim(2013)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부부가 부부 대화 및 갈등해결에 대한 높은 요구도가 있음에 주목하여, 부부의 친밀감 및 신뢰감 증진,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 등의 내용으로 통합 치료적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의사소통 기술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M. Choi & P. Yu, 2014)은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부부 적응 향상을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하였듯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주요 시행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부교육은 가족영역과 성평등영역에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가족영역 내 부부교육으로는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평등영역에서는 배우자부부교육의 일환으로 성평등, 이해, 믿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

다문화부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영역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S. Kim, J. Lee, M. Nam, & K. Im, 2009)은 부부관계 향상과 부모역할 향상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은 다문화부부의 자아정체성 점검, 원가족과의 관계해결, 의사소통 훈련, 부부관계 재구조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부모역할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양육방식 점검 및 장점 활용, 가족 의사소통, 양육의 장애물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통해 부부관계 향상 및 부모역할 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다문화부부, 자녀,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D. Hong, O. Chae, & N. Lee, 2010) 개발도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통해 가족 간의 행복감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가족원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 및 미래설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부부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을 살펴보면, 부부의 가족생활주기나 결혼지속년수를 고려한 맞춤형 부부교육을 제공한 프로그램도 일부 개발되고 있으나(H. Jang, 2013; M. Jun et al., 2015), 상당수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지속년수에 대한 고려 없이 부부교육을 제공하거나(D. Hong, O. Chae, & N. Lee, 201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결혼기간 3년 이상

의 부부(S. Kim, 2008; S. Kim et al., 2009)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발달주기에 속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확대기 및 자녀 독립기에 속한 다문화가족도 증가할 것이므로 향후 부부교육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부부뿐 아니라 결혼지속년수가 긴 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발달주기의 다문화부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를 살펴보는 것은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부부관계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조사대상자의 특징

이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할당표집하였다. 설문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로 각각 번역하였고 캄보디아어를 제외하고 해당 언어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번역된 설문지를 검수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217개소 중 9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9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은 시·도 별로 먼저 사전 전화 문의를 통해 설문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해 우선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추출하여 총 816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다문화부부의 한국 남성 배우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각각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세부적으로 남성은 247명(30.3%), 여성은 569명(69.7%)이다. 우선 한국 남성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40세~49세(64%), 40세 미만(19.8%), 50

세 이상(16.2%) 순이다(범위: 27세~65세, 평균: 44.1세). 배우자의 연령은 30세~39세(55.1%), 20세~29세(29.1%), 40세 이상(15.8%) 순이다(범위: 20세~58세, 평균: 33.9세). 남성의 학력은 고졸(53.0%), 전문대 및 대졸(36.0%), 중졸 이하(8.5%) 순이며, 배우자의 학력은 전문대 이상(36.8%), 고졸(35.6%), 중졸(19.0%), 초졸 이하(8.5%)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신국은 중국(35.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33.6%), 필리핀(11.7%), 일본(9.7%), 캄보디아(9.3%)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300만원(39.3%)이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29.9%), 300만원~400만원(22.3%) 순이다. 결혼지속기간은 8년~14년(41.3%)이 가장 많았으며, 4년~7년(29.1%), 3년 이하(24.7%), 15년 이상(4.9%)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42.9%), 1명(35.6%), 3명 이상(10.9%)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10.5%)도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의 연령이 7세 이하(60.6%)가 가장 많았으며,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35.7%),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둔 경우(3.6%) 순이다. 남성의 직업은 기능직 및 기계조작(26.3%), 사무직(22.7%), 서비스·판매직(14.6%), 농림어업(11.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이주

여성의 평균 연령은 34.04세로 30세~39세(47.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20세~29세(31.8%), 40세~49세(16.7%), 50세 이상(4.4%) 순으로 나타났다(범위: 21세~75세).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43.80세였으며, 40세~49세(59.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세 미만(23.2%), 50세 이상(17.6%) 순이다(범위: 26세~73세). 학력은 전문대 및 대졸(43.9%)이 가장 많았고, 고졸(33.9%), 중졸(14.1%) 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의 학력은 고졸(47.1%)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및 대졸(39.2%) 등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28.6%), 베트남(22.8%), 일본(21.1%), 필리핀(16.3%), 캄보디아(11.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 기간은 4년~7년(32.7%)이 가장 많았으며, 8년~14년(31.8%), 3년 이하(23.2%), 15년 이상(12.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을 살펴보면 60.1%의 여성이 전업주부였으며, 사무직(10.9%), 단순노무직(9.1%), 서비스 및 판매직(5.4%)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300만원(34.2%)이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200만원(27.6%), 300만원~400만원(15.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1명(37.4%), 3명 이상(13.8%), 자녀가 없는 경우(10.7%)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의 연령은 7세 이하가 58.9%로 가장 많았다(범위: 1세~45세).

Table 1. Characteristics of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N = 247)

Variable		n	%	Variable		n	%
Age (Range: 27-65)	Under 40	79	19.8	Wife's age (Range: 20-58)	20-29	72	29.1
	40-49	158	64.0		30-39	136	55.1
	Over 50	40	16.2		Over 40	39	15.8
Education	Middle school below	21	8.5	Wife'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below	21	8.5
	High school	131	53.0		Middle school	47	19.0
	College	89	36.0		High school	88	35.6
	Graduate above	6	2.4		College and above	91	36.8
Job	Service & sales	36	14.6	Wife's Country of Origin	China	88	35.6
	Agriculture & Forestry	28	11.3		Vietnam	83	33.6
	Skilled	65	26.3		Philippines	29	11.7
	Labor	14	5.7		Japan	24	9.7
	Office	56	22.7	Cambodia	23	9.3	
	Professional	16	6.5	Number of Child	None	26	10.5
	Other	32	12.9		1	88	35.6
			2		106	42.9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RW)	Under 200	74	29.9	Over 3	27	10.9	
	200 - 300	97	39.3	Age of the Eldest Child (Range: 1-37)	Under 8	134	60.6
	300-400	55	22.3		8-19	79	35.7
	Over 400	19	7.7		Over 19	8	3.6
	Other	2	.8				
Marriage Duration	3 below	61	24.7				
	4-7	72	29.1				
	8-14	102	41.3				
	Over 15	12	4.9				

2. 측정도구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의 교육 수준, 결혼지속년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로 구분되는데, 중국을 기준으로 네 개의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학력을 '무학' 1에서부터 '대학원 이상' 6까지로 구분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문화부부의 결혼지속년수는 '1년 미만' 1에서부터 '15년 이상' 5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부교육 프로그램 필요도 영역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년 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부부교육 및 가족프로그램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문화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배우자부부교육은 (예비)배우자 이해와 부부갈등해결을 다루고 있고 가족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 관계향상, 결혼과 가족, 가족의 의미, 아버지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다문화

부부는 문화·가치관의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살펴볼 내용은 총 3개 영역의 8개 프로그램으로 부부관계 영역(부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부부 성(性)생활에 대한 이해, 부부 친밀감 증진), 다문화이해 영역(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가정경영 영역(인생목표설정, 가계재무관리, 여가 관리)이다. 영역별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부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필요정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에서부터 '매우 필요함'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다. 둘째,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

Table 2. Characteristics of Wives in Multicultural Families

(N = 569)

Wives				Husbands			
Variable	n	%	Variable	n	%		
Age (Range: 21-75)	20-29	189	31.8	Husband's age (Range: 26-73)	Under 40	132	23.2
	30-39	268	47.1		40-49	337	59.2
	40-49	95	16.7		Over 50	100	17.6
	Over 50	25	4.4	Husband'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below	19	3.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below	24	4.2		Middle school	42	7.4
	Middle school	83	14.1		High school	268	47.1
	High school	193	33.9		College	223	39.2
	College	250	43.9		Graduate above	17	3.0
	Graduate above	20	3.5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RW)	Under 100	28	5.5
Country of Origin	China	163	28.6		100 - 200	152	27.6
	Vietnam	130	22.8		200 - 300	193	34.2
	Philippines	93	16.3		300-400	87	15.7
	Japan	120	21.1		Over 400	46	8.5
	Cambodia	63	11.1	Other	63	11.1	
Marriage Duration	3 below	132	23.2	Number of Child	None	61	10.7
	4-7	186	32.7		1	213	37.4
	8-14	181	31.8		2	217	38.1
	Over 15	70	12.3		Over 3	78	13.8
Job	Housewife	342	60.1	Age of the Eldest Child (Range: 1-45)	Under 8	299	58.9
	Service & sales	31	5.4		8-19	189	37.2
	Labor	52	9.1		Over 20	20	3.9
	Office	62	10.9				
	Other	82	14.4				

된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본인 및 배우자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덟 개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분산팽창지수(VIF)수를 검토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다문화부부 대상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프로그램 내용 중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이해'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도가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부부 친밀감 증진(M=3.9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M = 3.92)', '인생목표설계(M = 3.81)'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참조). 반면 '부부의 성(性)생활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평균 3.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 다문화이해 영역의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부관계 영역에서는 '부부 친밀감'이, 가정영역 영역에서는 '인생목표설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변수

다문화부부 대상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모델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회귀모델에 포함된 다문화부부의 성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변수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영역 중 '부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변수인 베트남($\beta = .25, p < .001$), 필리핀($\beta = .17, p < .001$), 캄보디아($\beta = .16, p < .001$)와 조사대상자 본인의 교육 수준($\beta = .10, p < .05$)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요구도 분산 6%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요구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인 경우와 조사대상자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에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이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배우자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부의 성(性)생활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베트남($\beta = .19, p < .001$), 필리핀($\beta = .16, p < .001$), 캄보디아($\beta = .16, p < .001$), 본인의 교육 수준($\beta = .10, p < .05$)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성(性)생활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요구도 분산의 5%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요구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중국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일 경우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성(性)생활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부부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beta = -.07, p < .05$),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rogram Needs

(N = 816)

Program	M	SD
Marit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3.63	1.11
Understanding sex	3.19	1.03
Increased intimacy for the couple	3.92	.99
Cultural Understanding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language of the partner	4.08	.93
Multicultural understanding	3.92	.90
Family Resource Management		
Set goals for life	3.81	.89
Financial management	3.66	.96
Leisure management	3.61	.92

국이 베트남($\beta = .27, p < .001$), 필리핀($\beta = .20, p < .001$), 캄보디아($\beta = .20, p < .001$), 본인의 교육수준($\beta = .08, p < .05$)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부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요구도 분산의 9%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남성 배우자보다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일 경우,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다문화이해 영역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 프로그램의 요구도는 성별($\beta = -.24, p < .001$),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베트남($\beta = .20, p < .001$), 필리핀($\beta = .17, p < .001$), 캄보디아($\beta = .11, p < .01$), 본인의 교육수준($\beta = .07, p < .05$), 결혼지속년수($\beta = -.09, p < .05$)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 프로그램 요구도 분산의 12%를 설명하였다. 즉, 한국 남성 배우자보다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일 경우,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요구도는 성별($\beta = -.08, p < .05$),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베트남($\beta = .21, p < .001$), 필리핀($\beta = .20, p < .001$), 캄보디아($\beta = .15, p < .001$), 본인의 교육 수준($\beta = .10, p < .01$)과 유의미

한 관계가 있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요구도 분산의 6%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남성 배우자보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인 경우, 그리고 본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정경영 영역의 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변수의 경우, 먼저 '인생목표설계'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변수는 성별($\beta = -.09, p < .01$),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베트남($\beta = .17, p < .001$), 필리핀($\beta = .17, p < .001$), 캄보디아($\beta = .10, p < .05$), 본인의 교육수준($\beta = .11, p < .01$)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인생목표설계' 프로그램 요구도 분산의 6%를 설명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 배우자보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인 경우, 그리고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경영 영역 중 '인생목표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가계재무관리'와 '여가관리' 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두 프로그램 모두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만이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프로그램 요구도를 각각 9%, 5%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재무관리' 프로그램 요구도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변수인 베트남($\beta = .24, p < .001$), 필리핀($\beta = .22, p < .001$), 캄보디아($\beta = .20, p < .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여가관리' 프로

Table 4.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Program Needs (N = 816)

Variable	Marital Relationship						Cultural Understanding						Family Resource Management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Understanding sex		Increased intimacy for the couple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language of the partne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et goals for life		Financial management		Leisure management									
	B	SE	B	β	B	SE	B	β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β		
Gender (Male=1)	-.06	.09	-.03	.11	.08	.05	-.16	.08	-.07	-.49	.07	-.24**	-.16	.07	-.08*	-.18	.07	-.09**	-.07	.07	-.03	.03	.07	.01
Nationa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¹⁾																								
Japan	.17	.12	.06	.18	.11	.07	-.03	.10	-.01	.16	.10	.06	.12	.10	.05	-.06	.09	-.03	-.08	.10	-.03	-.16	.10	-.07
Vietnam	.64	.11	.25***	.45	.10	.19***	.62	.09	.27***	.42	.09	.20***	.42	.09	.21***	.35	.09	.17***	.52	.09	.24***	.27	.09	.13**
Philippines	.54	.12	.17***	.47	.11	.16***	.54	.11	.20***	.44	.10	.17***	.51	.10	.20***	.43	.10	.17***	.59	.10	.22***	.32	.10	.13**
Cambodia	.58	.14	.16***	.53	.13	.16***	.64	.13	.20***	.34	.12	.11**	.44	.12	.15***	.28	.12	.10*	.62	.12	.20***	.51	.12	.17***
Education	.12	.05	.10*	.12	.05	.10*	.10	.04	.08*	.08	.04	.07*	.11	.04	.10**	.11	.04	.11**	.08	.04	.07	.05	.04	.05
Partner's education	-.02	.05	.02	-.01	.04	-.00	-.00	.04	-.00	.04	.04	.04	.06	.04	.05	-.07	.04	-.07	.01	.04	.01	.05	.04	.04
Marriage duration	.03	.04	.03	.01	.04	.01	.01	.04	.01	-.08	.03	-.09*	.04	.03	.04	.00	.03	.00	.03	.03	.03	.05	.04	.064
Intercepter	2.78***		2.37***		3.24***		3.74***		2.90***		3.50***		2.95***		2.86***									
R ²	.06		.05		.09		.12		.06		.06		.06		.09									

* $p < .05$, ** $p < .01$, *** $p < .001$

¹⁾ Reference group is China.

그럼 요구도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인 베트남($\beta = .13, p < .01$), 필리핀($\beta = .13, p < .01$), 캄보디아($\beta = .17, p < .001$) 변수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일 경우 '가계재무관리'와 '여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다문화가족의 한국 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문화 부부의 교육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자인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816명의 다문화부부(결혼이주여성 569명, 한국 남성 배우자 247명)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부부 대상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전체 프로그램 내용 중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이해', '부부 친밀감 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인생목표설계' 등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다문화이해 영역의 요구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고, 부부관계 영역에서는 '부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과 '부부의 성(性)생활에 대한 이해' 보다는 '부부 친밀감 증진'이,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가계재무관리'나 '여가관리' 보다는 '인생목표설계'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어서 부부 친밀감 증진을 바탕으로 장·단기적 관점의 인생목표설계를 수립하도록 다문화부부 교육이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부부의 성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가 프로그램 요구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 배우자보다 부부관계 영역의 '부부 친밀감 증진'과 다문화이해 영역의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가정경영 영역의 '장단기 관점에서의 생애목표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부부 교육 운영에 있

어서 부부의 친밀감 향상과 서로의 문화 및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구성이 부부교육에서 중요하게 포함되길 기대함을 의미한다. 또 결혼이주여성은 생애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장·단기적 관점의 인생목표설계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남성 배우자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은 것은 부부교육 참여에 있어 한국 남성 배우자의 관심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비율이 한국 남성 배우자보다 3.4배 높은 것(Y. Kim, 2010)을 고려할 때, 한국 남성 배우자의 부부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국 다문화부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가 중국과 일본 출신국 다문화부부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보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H. Kim & Y. Choi, 2012)와 유사한 것으로 동남아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부부와 동북아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부부관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내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 필리핀이나 베트남인 경우보다 부부갈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J. Park & K. Lee, 2014) 결과를 고려할 때,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언어나 문화로 인한 갈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다르므로, 출신국별 또는 동일 문화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부부의 교육수준은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부부관계 영역과 다문화이해 영역의 모든 프로그램과 가정경영 영역의 '인생목표설계' 등 6개의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이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부부의 성(性)생활에 대한 이해', '부부 친밀감 증진',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이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인생목표설계'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

비자교육 요구도가 높고(H. Park & S. Kim, 2014), 가족 상담의 필요성을 높게(H. Kim & Y. Choi, 2012)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 및 가족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 같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다는 비다문화부부 대상의 선행연구(S. Kim & S. Moon 2014)를 고려할 때, 다문화부부의 교육수준은 부부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과 프로그램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다문화부부에게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부부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부부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부부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내용요소 수위를 조정하여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부부의 결혼지속년수는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 프로그램 요구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 프로그램은 결혼지속기간이 짧은 다문화부부에게 필요성이 높게 인지되는 반면, 부부관계 영역과 가정경영 영역의 내용 요소는 결혼지속년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부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전체적으로 성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다양한 영역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와 일관되게 관련되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부부의 성별과 교육 수준 또한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부부 대상의 효율적인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 내용 구성에 다각적 차원의 점검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다문화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또 남성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남성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변수로 다문화부부의 일부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다문화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녀양육기의 가족이라는 경험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있어 자녀의 발달 단계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생활주기가 아닌 결혼지속년수로 살펴본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점이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을 함께 고려하는 가족생활주기와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추후 연구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서울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통합형 센터가 증가하는 현실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통합형 센터에서 다문화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eon, H., Choi, H. K., & Kang, I. (2006).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marital instability by duration of marriag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1(1), 179-202.
- Choi, M., & Yu, P. (2014). The effect of the couple relationships enhancement program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the Gottman's theor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9(1), 79-102.
- Choi, W. (2007). A study on the social-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Journal of Asian Women*, 46(1), 141-181.
- Chung, G. H., & Lim, J. Y. (2011). Comparison of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immigrant wives and Korean m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33-48.
- Chung, S., Park, H., & Oh, B. (2010).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based on the perceived agreement of quality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133-153.
- Goo, H. (2013). Qualitative study on the coping behavior of multicultural husbands i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6, 79-108.
- Halford, W. K., & Snyder, D. K. (2012). Universal processes and common factors in couple therapy and relationship education. *Behavior Therapy*, 43, 1-12.

- Hawkins, A. J., Blanchard, V. L., Baldwin, S. A., & Fawcett, E. B. (2008). Does marriage and relationship education work?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5), 723-734.
- Hong, D., Chae, O. H., & Lee, N. J. (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1), 75-89.
- Hong, D., & Park, K.-H. (2004). A study on the needs of couple education according to couple role of eld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7*(3), 83-106.
- Jang, H.-S. (2013). Development of 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in a formative period of family relation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3), 81-103.
- Jun, M., Son, S., Lee, E., Lee, Y., Kim, J., & Kim, M. (2015). *Program manual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Kong, M., & Oh, S. (2010). Its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Family and Culture, 22*(2), 95-120.
- Kang, K., & Chung, C. (2009). Adjustment factors for family life of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2), 153-167.
- Kim, H., & Lim, C.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on the marital efficacy of marriage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9*(17), 27-53.
- Kim, H.-S., & Choi, Y. S. (2012). Factors of related to the awareness for the needs of family counseling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3), 435-456.
- Kim, J. O. (2012). A study on demands of internation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urban-rural area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7*(3), 69-90.
- Kim, J. O. (2013).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therapeutic marital enhancement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8*(3), 157-177.
- Kim, K., Sun, J. J., & Oh, S. H. (2013). Stress,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 husbands married to foreign wiv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29-39.
- Kim, M. (2012). A study on mental health, resilience and happiness of intermarried Korean 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5), 135-147.
- Kim, O.-N., Kim, K.-S., & Lee, J.-H. (2008). A study on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program for immigrant women's husban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1), 69-84.
- Kim, S. (2008). A study on effectiveness of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in interracial families in the rural a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4*(4), 289-307.
- Kim, S., Lee, J., Nam, M., & Im, K. (2009). *Development of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Busan, Korea: Busan Women and Development Institute.
- Kim, S., & Moon, S. (2014). Studies on family support program according to the needs of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551-561.
- Kim, Y. (2010). Welfar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7*, 58-73.
- Kim, Y.-S., Lee, A.-R., & Lee, E.-A. (2013). *The social integ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differentiation in its policy demand*.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arson, J., & Halford, W. K. (2011). One size does not fit all: Customizing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for unique couple needs. In J. L. Wetchler (Ed.), *Handbook of clinical issues in couple therapy* (pp. 293-309). New York, NY: Routledge.
- Lee, E., & Jun, M. (2014). A meta-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4), 9-44.
- Lee, E.-J.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ouples group program for foreign wives and Korean husbands. *Family and Culture, 19*(1), 29-60.
- Lee, Y. (2010). Directions of the work and program based on the supporting law, policy and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5), 370-378.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2015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a). *2015 Guid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b). *Statistics on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2016 Guid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oul, Korea: Author.
- Park, H. Y., & Kim, S.-W. (2014). A study on consumer education demand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33-64.
- Park, J. (2009). The study on multicultural support service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0, 31-62.
- Park, J., Jun, M., & Son, S. (2015).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 for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couples*.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Park, J.-O., & Lee, K.-D. (2014).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omestic role attitude and gender consciousness of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Focused on the Daegu-Gyeongbuk Province. *Family and Culture*, 26(1), 205-236.
- Park, M. J., & Um, M. (2009).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4(2), 1-26.
- Sung, H.-R. (2011). The influence of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their wives' culture on their wives' acculturation and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7(2), 219-239.
- Yang, S., & Lee, M. (2011).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family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island region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7(3), 251-284.
- Yu, E.-H., & Kim, D.-S. (2005). The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and its effects for couples in the early marriage st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1-18.

- Received: November 10. 2016
- Revised: January 24. 2017
- Accepted: February 20. 2017